

성인이 지각한 행복의 수준과 요인: 가정,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박 영 신¹⁾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김 의 철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박 선 영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이 연구에서는 성인이 지각한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및 전반적인 행복의 수준과 행복의 요인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직업성취 집단별, 가정경제수준 집단별, 자녀학업성취 집단별 행복 수준의 차이와 행복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성인 1,970명(남 985명, 여 985명)이었으며, 질문지는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들은 다소 행복한 편이었으며, 성인의 행복 수준은 직장생활이나 여가생활에 비해 가정생활에서 가장 높았다. 둘째, 직업성취 집단별 행복 수준의 차이를 공변량분석했을 때, 직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에서의 행복 수준 및 전반적 행복 수준이 높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경제 집단별 공변량분석에서는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녀학업성취 집단별 공변량분석에서는 자녀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및 전반적인 행복 수준이 높았다. 셋째, 직업성취,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가 행복 수준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전반적 행복 수준에 대해 세 변인 모두 의미있는 영향이 있었는데, 직업성취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의 순서로 나타났다. 넷째, 성인이 지각한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행복의 요인 및 전반적 행복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가정생활에서 행복한 때에 대해서는 가정의 화목이라는 범주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출산과 성장, 가족의 성취 범주가 그 뒤를 이었다. 직장생활에서 행복한 때에 대해서는 개인적 성취감 범주가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그 다음은 경제적 안정, 주위의 인정, 승진 범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에서 행복한 때에 대해서는 가족과 함께 함이라는 범주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 다양한 취미활동, 운동 범주 등이 거론되었다. 전반적으로 가장 행복한 때에 대해서는 가정의 화목 범주가 약 절반을 이루었고, 그 다음으로 자녀의 출산과 성장, 건강 범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행복 수준, 행복 요인,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직업성취,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 가정 화목

* 이 연구는 2013년도 인하대학교 교수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1) 교신저자 :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mail : yspark@inha.ac.kr)

I. 서 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살아간다. 물론 행복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고, 개인에 따라 또는 문화에 따라 다르다. 버틀란트 리셀은 행복을 정복하는 길(이순희 역, 2004)에 대한 몇 가지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 가정적인 행복을 위해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좋은 부모가 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또한 직업에서의 성취감을 위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일하는 사람이 덜 불행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것에 폭넓은 관심을 갖고 긴장을 이완하며 여가시간을 즐기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것이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고 생활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게 해주며, 때로는 위안을 주기도 하여 올바른 기분전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및 여가생활에서의 행복이, 성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생활영역으로 포함됨을 시사한다. 현대인의 생활에서 여가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심리학 분야에서도 행복과 관련하여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 류승아, 김경미와 최인철(2011)은 중년기 여가생활이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가참여시간은 주관적 행복감,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불편 증상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고, 여가만족도는 주관적 행복감, 심리적 건강불편 증상, 그리고 수면의 질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만족할수록 더욱 행복하

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김경미, 류승아와 최인철(2012)은 여가활동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과 가족만족도가 높아짐을 밝혔다.

가정생활이 행복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어 왔다. 김경미 등(2012)의 분석에 의하면, 중년기에 배우자 및 자녀와 식사를 자주 할수록 행복하고 건강하며 가족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가족 간에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 것도 행복, 건강, 가족만족도, 성생활만족도 및 부모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Jacob, Hill, Allen과 Mead(2008)는 가족들과 식사를 자주할수록 자녀 및 배우자와 관계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직업만족도도 증가함을 밝혔다. 또한 Eisenberg, Olson, Neumark-Sztainer, Stroy와 Bearinger(2004)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가족과의 유대감을 높이며, 자기 통제 및 정서적 안녕감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일상적인 활동이 성인의 행복, 건강 및 가족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서, 성인의 행복에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한국인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파악한 연구가 있다. 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과 최인철(2010)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표집을 하여 한국인 행복 지수를 구했는데, 100점 만점에 63.22점으로서 중간보다 조금 높은 값이었다. 서은국 등(2010)이 밝힌 한국인 행복 지수는 Myers와 Diener가 세계 45개 국가를 대상으로 산출한 세계인 행복 평균

67.5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Myers, 1996, 재인용). 세계인 행복 평균보다는 조금 낮지만,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불행하기보다 약간 행복한 편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2010)에서 한국인의 현재 삶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는, 5점 척도에서 개인생활 3.6점, 가족생활 3.8점, 직업생활 3.4점, 전반적 만족도 3.6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은 중간 이상 정도의 삶의 만족도를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OECD 주요국의 행복지수 순위를 36개 국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8점 만점에 한국 5.75점으로서 24위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2. 5. 23). 여기에서 행복지수는 11개 항목(주거, 소득, 고용,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을 분석한 결과인데, 호주가 1위였으며, 한국은 2011년에 26위였는데 2위 향상하였으나, OECD 국가들 중에서 낮은 순위에 속한다. 한편 31개 OECD국가들의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2000년에 27위였는데 2008년에도 27위로서 동일 순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OECD국가들 중에서는 하위권으로 나타났다(조병구, 김종희, 박명호, 오완근, 박찬열, 2010). 여기에서 삶의 질 평가 항목이 범죄율, 사회지출, 산업안전, 빈곤, 분배의 행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심리적인 주관적인 행복 지수와는 다른 객관적 지표들로 구성되었다.

행복 수준이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에서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한 연구들이 있다. 외국에서 진행된 Cameron(1995) 및, Diener, Suh, Lucas와 Smith(1999)의 연구에서

는 행복 수준에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내에서 연구된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과 임지영(2003)과 유경, 이주일, 강연옥과 박군석(2009) 및 전경숙, 정태연과 황빙의(2008)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주관적 안녕감이나 행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철, 박영신과 박선영(2012)의 연구에서 성인은 성별로 전반적인 행복과 직장생활 행복 및 여가생활 행복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정생활 행복에서는 매우 유의한 차이가 밝혀졌는데, 국내의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욱 행복하였다. 가정생활 행복에서만 성차가 나타난 것은 자녀를 둔 여성들이 가정에서 자녀양육과 가사에 대한 책임을 도맡는 등 어머니나 아내로서 과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른 것일 수 있다.

유경과 이주일(2010)은 행복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이유가, 남자와 여자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인지, 아니면 행복 경험의 강도와 빈도의 차이 때문인지 불명확하나, 어쨌든 남자와 여자 각각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박영신과 김의철(2011)이 중년기 성인 남녀의 행복 형성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업주부, 취업주부와 그들의 남편을 중심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업주부는 자녀가 행복할수록 더욱 행복하였는데, 자녀의 행복이 월평균 수입보다 더 영향력이 컸다. 취업주부 경우는 자녀의 행복이 취업주부의 행복에 의미있는 영향이 있었으나 직업성취보다 영향력이 훨씬 적었다. 그리고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에 남편은 취업주부와 달리 직업성취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녀의 행복은 남편의 행복에 의미있는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남자와 여자의 행복 형성과정에서 의미 있게 작용하는 요인들이 다름을 보여준다. 또한 박영신과 김의철(2009b)의 연구에서 행복에 대한 영향력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남자 직장인과 전업주부 및 취업주부의 행복형성 요인이 질적으로 달랐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 성인의 행복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성별 변인의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별 외에도 성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이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들의 행복과 관련성이 시사되는 변인으로 직업에서의 성취,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에 관심을 갖는다.

성인의 직업에서 성취는 행복에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검증되어 왔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의 연구에서 상류층, 중산층, 극빈층의 세 사회계층을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직업유형의 성인을 대상으로 경로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직업성취는 행복에 의미있는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효과분석 결과에 의하면, 성인이 지각하는 직업에서 성취감은 실제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대한 효과가 2배 정도 되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b)이 남자 직장인을 대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직업성취는 정서적 지원과 더불어 행복을 예측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남자 직장인들 경우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

고 직업에서 성취도가 높으면, 학력이나 연령이나 월평균수입이나 자기효능감 또는 자녀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성인의 직업 성취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직무만족도의 형성에 대한 연구 결과도 직업에서의 성취가 성인의 행복에 미치는 의미 있는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박영신, 김의철과 박은실(2009)이 성인 직장인 중에서도 교사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교사의 직무성취도는 직무만족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정적인 경로계수는 3개월 뒤에 단기 종단추적을 하였을 때에도 재확인되었다. 즉 직업에서 성취도가 높은 교사일수록 직업과 관련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것이 결국 높은 행복감과 관련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성인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자원으로 돈이 없이는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책임져 나갈 수 없고, 특히 한국에서는 자녀가 있는 성인들에게 자녀교육비 및 양육비에 대한 부담은 무시할 수 없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의미 있게 나온 바 있다. 물론 정서적 지원이나 직업성취 및 자기효능감이나 자녀성공과 같은 변인보다는 설명력이 낮았지만, 의미있는 영향력이 있었다. 물론 월평균 수입 변인이 경로모형에서 제외되어도 월평균 수입 변인이 포함된 경로모형과 비교해 볼 때 모형적합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것은 정서적

지원, 직업성취, 자기효능감, 자녀성공과 같은 다른 변인들이 경로모형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월평균 수입 변인이 행복에 대해 의미있는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박영신과 김의철(2009b)이 배경정보 집단별 행복의 차이를 t-검증 및 변량분석한 결과,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직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이, 사회계층이 높은 집단이, 자녀가 성공한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더욱 행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나, 여자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성별에 무관하게 모두 일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을 위한 경제적 자원의 중요성은 삶의 질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시사된다. 박영신과 김의철(2006)이 투입변인을 연령, 성별, 가정의 경제수준 및 성취도로 하고,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삶의 질에 대해 가정경제수준과 성취도가 의미있는 예언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성인들 경우에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성취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삶의 질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대표적 요소로 지적되었다(박영신, 김의철, 2006).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한국 사람들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원으로서 경제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행복과 관련된 연구에서 문화적 특성

에 관심을 갖고 접근한 경우가 있다. 성민선과 서은국(2007)이 세계 49개국 표본을 대상으로 행복한 사람이 네 가지의 부정적 성격특징(이기적인, 미숙한, 거만한, 소견이 좁은)과 세 가지의 긍정적 특징(도덕적인, 따뜻한, 타인에게 존중받는)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평정하게 한 결과, 긍정적인 정도가 부정적인 정도보다 더 높은 국가일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컨대 브라질, 캐나다, 미국 등 북중남미권은 이집트, 일본, 중국, 한국과 같은 국가들보다 행복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문화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경우는 행복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의 긍정성 수준이 이집트 일본 중국보다는 높았으나, 미국 칠레 캐나다보다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안녕감에서의 문화차이가 행복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의 긍정성 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화 차이에 관심을 갖고, 삶의 질이나 행복과 관련된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규명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Kim, Yang과 Hwang(2006)은 문화적 맥락 가운데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문화에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토착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행복의 요인에 대해서도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 부모의 높은 자녀교육열도 토착심리의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김의철, 박영신, 2008). 한국인의 자기개념은 서양인의 자기개념과 달리 관계적 자기로서의 특징을 갖는다(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 부모

들은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받아들이기보다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을 하고, 자녀의 학업성취는 부모의 희생에 대한 보답의 방식 중 하나가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의 성취는 부모에게 대리적 성취감을 제공하고, 따라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Park, 2008). 자녀가 학업에 충실한 것이 감동적인 효도로 인식되고(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11), 자녀의 학업성취나 성공이 부모의 행복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한국 성인 행복의 요인에서 토착심리적인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민과 한성열(2009)도 행복이 문화적인 개념임을 강조한다. 한국 사람들의 행복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보다는 신바람 또는 신명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와 박선영(2012)이 한국 청소년 행복의 토착심리를 분석하였을 때, 가정의 화목이 가장 대표적인 행복의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그 다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 개인적 성취감의 순서로 나타났다. 청소년만이 아니라 한국 성인들도 가정의 화목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은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을 통해 시사된다. 김은미, 구재선과 최상진(2003)이 행복한 사람의 특성에 대한 일반인의 표상을 분석한 결과, 성인 경우에 가정의 화목이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였으며, 가족지향성과 자녀지향성을 보이는 빈도가 높았다. 그러므로 한국 성인의 행복이 가족의 상호의 존적 대인관계를 통해 경험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박영신 등(2011)의 연구에서, 효

도가 중요한 이유로 가정의 화목이 인간의 도리와 함께 포함된 바 있다.

성취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한국 성인의 행복 요인에 관련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박영신, 김의철과 김정자(2010)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에 대한 표상을 기록하게 하였을 때, 대표적인 개념범주들로 원만한 인간관계, 화목한 가정생활, 직업성취 등이 밝혀진 바 있다. 한국 성인들이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가정이 화목하며 직업에서 성취를 경험할 때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을 경험한다는 의미는, 이러한 때에 행복한 긍정적 정서가 수반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경숙 등(2008)이 청소년과 부모세대 각각의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요인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과 부모세대 모두에서 가족관계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부모 세대에서는 경제적 성공, 자녀, 배우자 요인이 삶의 만족도를, 자기발전, 경제적 성공, 자녀 요인이 긍정적인 정서를, 배우자, 건강, 자녀요인이 부정적인 정서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성인의 행복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가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생활만족이나 행복과 관련하여 자녀의 중요성을 밝힌 선행연구들이 많이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8)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자녀에 대한 신뢰 및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자녀에 대한 신뢰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녀에 대한 신뢰는 성인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여기에서 자녀에 대한 신뢰는 자녀의 성실성, 자녀와의 혈연관계, 자녀의 순종, 자녀의 학업 충실을 측정변인으로 한 잠재변인이었다. 그러므로 혈연관계에 있는 자녀가 성실하고 순종하며 학업에 충실할수록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는 부모의 관계효능감, 양육어려움극복효능감, 자녀와 의사소통효능감 등과 같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서 결국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킨다.

또한 자녀의 효도가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킨다는 결과도 있다. 박영신 등(2011)이 경로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자녀가 효도를 할수록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초, 중, 고, 대학생의 부모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효도가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크기는, 가정경제수준이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의 가정생활만족이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관련 특성 가운데서도, 학업성취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 학업성취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들에서 시사되어 왔다. 최근 박영신 등(2011)이 한국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효도와 관련된 토착심리를 규명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 부모가 가장 감동하는 자녀의 효도는 학업충실이였다. 또한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대표적인 효도 행동으로 학업충실이 포함되었으며,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효도의 언어표현으로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학업에 소홀 하는 것

을 한국 부모들은 불효의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녀의 학업성취가 부모에게는 효도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김은미 등(2003)의 연구에서, 부모가 행복한 상황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을 보면, 학업에서 성취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행복해 한다는 응답이 나타남으로써, 학업성취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자녀가 학생인 경우는 학업에서의 성취가 중요하지만,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학업성취가 더 이상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의 전반적인 성공에 대한 부모의 지각이 부모의 행복 지각에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의 연구에서 자녀가 성공했다고 지각할수록 부모가 더욱 행복하였다. 이러한 자녀의 성공에 대한 부모의 지각은 가정의 월평균 수입이 미치는 행복에 대한 영향력보다 더 컸다.

또한 자녀의 건전한 성장 자체가 행복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 유경과 이주일(2010)이 여성을 대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다회귀분석하였을 때, 30~45세에 해당하는 성인 초기 여성들 경우에 총 16개의 요인들 중에서 자녀성장이 가장 영향력이 컸고, 그 다음으로 긍정적인 인생관, 건강, 종교, 배우자, 대인관계가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이 30~45세 여성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이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

력을 경로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행복에 대해 정서적 지원의 경로계수가 정적으로 가장 큰 값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직업성취, 자기효능감, 자녀성공의 순서로 의미있는 직접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를 기초로 효과분석한 결과는, 주위의 의미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는 월평균 수입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의 4~5배 정도 되었다. 그리고 직업성취 및 자기효능감이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2배 정도, 자녀성공은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1.5배 정도 되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b)이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자녀의 성공은 가정의 월평균 수입과 함께 전업주부의 행복을 예측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학력, 연령,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은 전업주부의 행복에 의미있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에서 검토한 선행연구 결과들에 토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성인이 지각한 행복의 수준과 요인을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및 전반적 행복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째, 성인의 전반적 행복의 수준을 살펴보고, 나아가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영역별로, 성인들이 어떠한 영역의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지를 행복 수준의 평균 차이 검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직업성취 집단별, 가정경제 집단별, 자녀학업성취 집단별로 행복 수

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성별에 따라 행복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김의철 등, 2012; 박영신, 김의철, 2011) 결과에 토대하여, 성별의 영향을 배제하고, 직업성취 집단별, 가정경제 집단별, 자녀학업성취 집단별 차이만을 규명하고자 한다. 행복 수준은 가정생활 행복, 직장생활 행복, 여가생활 행복, 전반적 행복에 대해 모두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직업성취,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가 행복 수준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넷째, 성인이 지각한 행복의 요인을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전반적 행복의 측면에서 각각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응답자들의 자유반응을 질적으로 내용분석하고, 이를 숫자로 명명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정생활 행복의 요인, 직장생활 행복의 요인, 여가생활 행복의 요인, 전반적 행복의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전체집단의 반응만이 아니라, 직업성취 상중하 집단별, 가정경제 상중하 집단별, 자녀학업성취 상중하 집단별로도 분석함으로써, 각 하위집단이 행복의 요인에 대한 인식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더불어 살펴보고자 한다.

행복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많이 있었으나, 한국 성인이 지각하는 행복의 토착심리를 규명하고자 한 질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 연구에서 한국 성인들이 지각하는 행복의 요인을 전반적인 요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성인 삶의 대표적 영역인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각 생활영역에서 행복의 요인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한국 성인의 행복 수준에 대해

서도 전반적인 행복 수준에 대한 지표들은 누적되어 왔으나, 직업성취수준,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수준 집단별로 성인이 지각하는 행복 수준을 정교하게 다룬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특별히 성별로 행복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성별 영향을 배제한 직업성취수준,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수준 집단별 행복의 차이를 정교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연구들, 예를 들어 성취의식(박영신, 김의철, 2013), 부모자녀관계(박영신, 김의철, 2004), 스트레스(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과 함께, 한국 성인의 행복과 관련된 고유한 심리특성 탐구과정에 의미있는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행복 요인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 성인에게 공유된 행복의 사회적 표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행복 수준에 대한 연구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 예컨대 자녀학업성취 집단별 한국 성인의 행복에 대한 분석결과를, 한국 성인 행복의 심리를 한국사회의 성취지향 문화의 시각에서 부모자녀관계 맥락과 관련된 이해에 의미있는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를 위한 표집대상 2,165명 중에서

최종 분석대상은 도시지역의 성인 1,970명이었다(회수율 90.9%). 이들은 초등학교의 부모 538명, 중학생의 부모 540명, 고등학교의 부모 422명, 대학생의 부모 470명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성인 집단은 모두 결혼을 하였으며, 초등학교에서 대학생의 자녀를 둔 점에서 동질적인 집단이었다. 분석대상의 성별 분포는 남자 985명, 여자 985명이었다.

분석대상의 배경정보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령은 평균 40대 중반이었으며,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다. 직업은 판매/서비스직과 사무/관리직이 절반을 차지하였고, 주관적으로 지각한 직업에서의 성취수준은 보통인 경우가 반 정도이며, 낮은 성취보다는 높은 성취 지각을 더 많이 하였다. 분석대상의 2/3가 가정의 경제수준을 중간으로, 사회계층을 중류층으로 지각하였다. 자녀의 성취수준에 대해서는 반 정도가 중간으로 지각하였으며, 자녀의 성취수준을 전반적으로 높게 지각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성인의 행복을 측정하는 질문지는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질문지는 배경정보와 행복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배경정보에서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가정의 경제수준, 사회계층, 자녀의 성취정도에 대한 지각을 질문하였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5개의 답지(최상, 상, 중, 하, 최하) 중에서, 사회계층도 5개의 답지(최상류층,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극빈층) 중에서, 자녀의 성취정도에 대한 지각도 5개의 답지(매우 낮

표 1. 분석대상의 배경정보

연령	평균 44.52세(초등학생 부모 41.87세, 중학생 부모 42.69세, 고등학생 부모 44.73세, 대학생 부모 49.40세) 중앙치 44.00세, 최빈치 45세, 표준편차 4.72
학력	초등 졸(1.3%), 중 졸(4.2%), 고 졸(48.9%), 대 졸(41.0%), 대학원 졸(4.6%)
직업유형	판매/서비스직(24.3%), 사무/관리직(23.2%), 무직/가정주부(23.1%), 노동/생산직(15.0%), 고위관리/전문직(14.3%)
직업성취	매우 낮은 성취(1.3%), 약간 낮은 성취(5.2%), 보통(43.6%), 약간 높은 성취(36.0%), 매우 높은 성취(13.9%)
가정경제수준	최하(1.2%), 하(13.2%), 중(72.9%), 상(12.2%), 최상(0.5%)
사회계층	극빈층(1.1%), 하류층(14.8%), 중류층(76.2%), 상류층(7.5%), 최상류층(0.4%)
자녀 성취수준	매우 낮음(2.0%), 약간 낮음(8.3%), 보통(41.8%), 약간 높음(37.6%), 매우 높음(10.3%)

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중에서 선택하도록 제작되었다.

행복 질문지는 행복의 수준에 대한 양적인 측정과, 행복의 요인에 대한 질적인 측정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행복의 수준은 얼마나 행복한가를 질문하고, 5점 척도(매우 불행, 약간 불행, 보통, 약간 행복, 매우 행복) 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복의 수준은 가정생활(문항: 당신은 가정생활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직장생활(문항: 당신은 직장생활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가생활(문항: 당신은 여가생활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및 전반적인 행복(문항: 종합적으로 볼 때 당신은 얼마나 가장 행복합니까?) 각 1문항씩 순서대로 질문하여, 총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행복의 요인은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를 질문하고,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만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행복의 요인도 행복의 수준과 마찬가지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및 전반적인 행복에 대해 각각 응답하도록 구성

되었다. 가정생활(문항: 당신은 가정생활에서 언제 가장 행복하였습니까?), 직장생활(문항: 당신은 직장생활에서 언제 가장 행복하였습니까?), 여가생활(문항: 당신은 여가생활에서 언제 행복하였습니까?) 및 전반적인 행복(문항: 종합적으로 볼 때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하였습니까?) 각 1문항씩 질문하여, 총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행복의 요인에 대해 자유반응형식으로 응답한 결과는 질적으로 분석되었다. 질적 응답에 대해 채점자간 신뢰도를 구한 결과는 97.9%로 매우 높은 신뢰 수준을 나타내었다.

3. 실시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성인 표집대상은 기혼이면서 자녀가 초, 중, 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현재 학생인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성인 표집의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초, 중, 고, 대학교에서 교사 및 담당 교수의 협조를 받아 학생

들에게 성인용 질문지를 배부하고, 집에서 부모들이 응답한 질문지를 제출하게 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질문지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독려하였다. 수거된 질문지의 성실한 응답 여부를 확인하고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양적으로 측정된 행복 수준은 배경정보와 함께 코딩되었다. 코딩된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행복 수준의 파악을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다. 또한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영역별 평균 차이 검증을 위해 반복 측정(repeated measure) 방식으로 차이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직업성취 집단별, 가정경제 집단별, 자녀학업성취 집단별 행복 수준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공변량분석을 하였다. 여기에서 독립변인은 각 집단을 상 중 하의 세 하위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행복에서의 성차를 밝히고 있는 선행연구들의(김명소 등, 2003; 김의철 등, 2012; 박영신, 김의철, 2009b, 2011; 유경 등, 2009; 전경숙 등, 2008) 결과들을 참고하여 성별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각 독립변인별 영향력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성별을 공변인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공변량분석에서 행복 수준은 가정생활 행복, 직장생활 행복, 여가생활 행복, 전반적 행복 각각에 대해 모두 분석하였다. 공변량분석에 제시된 평균값은 교정된 값이며, 따라서 분석표에서 표준편차(SD)가 아니라 표준오차(SE)가 제시되었다.

셋째, 직업성취,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가 행복 수준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비교를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직업성취,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를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행복 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은 enter방식으로 하였다. 직업성취,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 외에 성별이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이 연구의 관심을 벗어나므로, 성별 변인은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지 않았다.

넷째, 행복의 요인에 대한 분석은 응답자들이 자유반응한 내용을 그대로 모두 코딩되었다. 그 내용을 보고 동일한 질적 반응들끼리 묶어 항목을 구성하고, 각각의 항목을 명명하였다. 유사한 항목들끼리 묶어서 범주를 구성하고, 각각의 범주를 대표하는 이름을 명명하였다. 이러한 범주와 항목으로 제작된 개념틀에 기초하여, 모든 응답들이 숫자로 코딩되었으며, 양적으로 입력한 자료에 대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빈도분석은 가정생활 행복의 요인, 직장생활 행복의 요인, 여가생활 행복의 요인, 전반적 행복의 요인 각각에 대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행복의 요인에 대한 분석에 있어, 분석대상 전체집단의 반응만이 아니라, 직업성취 상중하 집단별, 가정경제 상중하 집단별, 자녀학업성취 상중하 집단별로도 분석을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성인이 지각한 영역별 행복 수준

성인이 지각한 영역별 행복 수준을 정리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행복

표 2. 성인이 지각한 영역별 행복 수준

	<i>M</i>	<i>SD</i>	<i>SS</i>	<i>df</i>	<i>MS</i>	<i>F</i>
전반적 행복	3.85	.79				
가정생활 행복	4.07 ^c	.84	274.37	2	137.19	302.23***
직장생활 행복	3.60 ^b	.78				
여가생활 행복	3.54 ^a	.92				

*** $p < .001$

수준의 값은 5점 척도 상에서 3점이 보통이고, 3점 이하는 불행이고 3점 이상은 행복함을 의미한다. 표 2를 보면 전반적 행복은 평균 3.85로서, 보통 수준을 넘어서 행복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영역별 행복의 차이를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영역별로 검증한 결과를 보면, 세 영역별 행복 수준의 평균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세 영역별 행복 수준의 평균이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가정생활 행복이 $M=4.07$ 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직장생활 행복, 여가생활 행복의 순서를 보이나, 직장생활과 여가생활 행복 수준의 평균값은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성인들 경우에 가정생활에서 행복 수준이 직장생활이나 여가생활에서의 행복 수준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가정생활 행복 수준보다는 낮지만, 직장생활과 여가생활에서도 보통 이상으로 약간 행복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집단별 행복 수준의 차이

성인의 하위집단을 직업성취 집단별, 가정경제 집단별, 자녀학업성취 집단별로 구분하

고, 이러한 각각의 하위집단별 행복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3~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은 직업성취 상 중 하 집단별로 행복 수준의 차이를 공변량 분석한 결과이다. 종속변인인 행복 수준은 가정생활 행복, 직장생활 행복, 여가생활 행복, 전반적 행복 각각별로 분석하였다.

직업성취 집단별로 전반적 행복 수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성별 공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직업성취 집단별로는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세 하위집단간의 평균이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성취 상집단은 $M=4.13$ 으로서 매우 행복 수준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간집단, 하집단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직업성취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전반적으로 행복 수준이 높았다.

직업성취 집단별 가정생활 행복에서의 차이를 공변량 분석한 결과, 성별 공변인에 따른 가정생활 행복은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공변인의 효과를 배제하고 직업성취 집단별 가정생활 행복에서의 차이도 $p < .001$ 수준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세 하위집단간의 평균이 모두 의미있는

표 3. 직업성취 집단별 행복 수준의 차이 공변량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M	S.E.	F
전반적 행복	공변인: 성별			1.05
	직업성취: 상집단	4.13 ^c	.03	138.43***
	중간집단	3.59 ^b	.03	
	하집단	3.24 ^a	.07	
가정생활 행복	공변인: 성별			14.22***
	직업성취: 상집단	4.32 ^c	.03	97.17***
	중간집단	3.87 ^b	.03	
	하집단	3.43 ^a	.08	
직장생활 행복	공변인: 성별			4.62*
	직업성취: 상집단	3.92 ^c	.03	178.59***
	중간집단	3.30 ^b	.03	
	하집단	2.97 ^a	.07	
여가생활 행복	공변인: 성별			2.36
	직업성취: 상집단	3.77 ^c	.03	66.80***
	중간집단	3.34 ^b	.03	
	하집단	2.96 ^a	.09	

* $p < .05$, *** $p < .001$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성취 하위 집단별 평균을 살펴보면, 상집단이 4.32로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간집단, 하집단으로서, 직업성취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 행복 수준이 높았다.

직업성취 집단별 직장생활 행복 수준에서의 차이를 공변량분석한 결과에서도, 성별 공변인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공변인의 효과를 제외하고, 직업성취 집단별로 직장생활 행복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세 하위집단간의 평균이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

성취 상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그 다음이 중간집단이고, 하집단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미만의 평균을 보였다. 따라서 직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직장생활에서의 행복 수준이 높았다. 직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은 직장생활에서 약간 불행하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성취 집단별 여가생활 행복 수준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정생활 및 직장생활에서와는 달리 성별 공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직업성취 집단별로는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세 하위집단간의 평균이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위 집단별 평균은, 상집단이 $M=3.77$, 중간집단이 $M=3.34$ 로서 보통 이상의 값을 보이고, 하집단 평균은 $M=2.96$ 으로 보통 이하의 값을 보였다. 그러므로 직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여가생활 행복 수준이 높는데, 특히 직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은 여가생활에서 약간 불행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직업성취 상집단이 중간집단보다, 중간집단은 하집단보다, 직장생활에서만 아니라 가정생활, 여가생활에서 행복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전반적인 행복 수준도 직업성취

도가 높을수록 높았다.

표 4는 독립변인을 가정경제 집단으로 하였을 때, 가정경제 상 중 하 집단별로 행복 수준의 차이를 공변량분석한 결과이다. 종속변인인 행복 수준은 가정생활 행복, 직장생활 행복, 여가생활 행복, 전반적 행복 각각별로 분석하였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을 모두 합한 전반적 행복 수준에 대해 가정경제 집단별로 공변량분석한 결과, 성별 공변인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정경제 집단별로는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

표 4. 가정경제 집단별 행복 수준의 차이 공변량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i>M</i>	<i>S.E.</i>	<i>F</i>
전반적 행복	공변인: 성별			.07
	가정경제수준: 상집단	4.30 ^c	.04	124.91***
	중간집단	3.88 ^b	.02	
	하집단	3.29 ^a	.05	
가정생활 행복	공변인: 성별			12.50***
	가정경제수준: 상집단	4.43 ^c	.05	89.64***
	중간집단	4.10 ^b	.02	
	하집단	3.53 ^a	.05	
직장생활 행복	공변인: 성별			3.73
	가정경제수준: 상집단	4.05 ^c	.05	60.89***
	중간집단	3.59 ^b	.02	
	하집단	3.25 ^a	.05	
여가생활 행복	공변인: 성별			.17
	가정경제수준: 상집단	4.00 ^c	.06	86.01***
	중간집단	3.58 ^b	.02	
	하집단	3.01 ^a	.05	

*** $p<.001$

다. 사후검증 결과, 세 하위집단간의 평균이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경제 상집단은 평균 $M=4.30$ 으로서 매우 행복 수준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간집단이 $M=3.88$, 하집단이 $M=3.29$ 의 평균을 보였다. 그러므로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전반적으로 행복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정경제 집단별 가정생활 행복에서의 차이를 공변량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별 공변인에 따른 가정생활 행복은 $p<.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공변인의 효과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가정경제 집단별 가정생활 행복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도 $p<.001$ 수준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세 하위집단간의 평균이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경제 하위집단별 평균을 살펴보면, 상집단이 $M=4.43$ 로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간집단, 하집단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정생활에서의 행복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가정경제 집단별 직장생활 행복 수준에서의 차이를 공변량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별 공변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정경제 집단별로 직장생활 행복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세 하위집단간의 평균이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경제 상집단이 $M=4.05$ 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중간집단, 하집단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가정경제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직장생활에서 행복 수준도 높았다.

가정경제 집단별 여가생활 행복 수준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공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정경제 집단별로는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세 하위집단간의 평균이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위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상집단이 $M=4.00$ 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간집단, 하집단의 순서였다. 그러므로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여가생활 행복 수준이 높았다.

표 4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가정경제 상집단이 중간집단보다, 중간집단은 하집단보다, 가정생활에서만 아니라 직장생활, 여가생활 및 전반적인 행복 수준이 더욱 높았다. 그러므로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은 성인의 행복 수준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는 자녀학업성취 집단별 행복 수준의 차이를 공변량분석한 결과이다. 공변인 성별에 따른 행복 수준의 차이는 가정생활 행복에서만 $p<.001$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직장생활, 여가생활 및 전반적 행복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공변인의 효과가 배제된 자녀학업성취 집단별 유의도 검증 결과를 보면, 전반적, 가정생활, 직장생활 행복은 모두 $p<.001$ 수준의 매우 높은 유의도 수준을 나타내었고, 여가생활 행복에서만 $p<.01$ 수준의 유의도를 보였다.

전반적 행복에 대해 사후검증을 한 결과는 상집단이 이질 집단이고, 중간집단과 하집단은 동질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녀가 높은 학업성취를 하는 집단이 자녀의 학업성

표 5. 자녀학업성취 집단별 행복 수준의 차이 공변량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M	S.E.	F
전반적 행복	공변인: 성별			.02
	자녀학업성취: 상집단	3.97 ^b	.03	23.78***
	중간집단	3.76 ^a	.03	
	하집단	3.64 ^a	.06	
가정생활 행복	공변인: 성별			11.58***
	자녀학업성취: 상집단	4.18 ^b	.03	20.28***
	중간집단	3.97 ^a	.03	
	하집단	3.85 ^a	.06	
직장생활 행복	공변인: 성별			3.82
	자녀학업성취: 상집단	3.69 ^b	.03	11.05***
	중간집단	3.52 ^a	.03	
	하집단	3.46 ^a	.06	
여가생활 행복	공변인: 성별			.08
	자녀학업성취: 상집단	3.63 ^b	.03	5.69**
	중간집단	3.49 ^{ab}	.03	
	하집단	3.46 ^a	.07	

** $p < .01$, *** $p < .001$

취도가 중간이나 낮은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욱 행복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영역별로 비교해 볼 때, 가정생활 행복과 직장생활 행복은 모두, 자녀학업성취 상집단이 이질 집단이고 중간집단과 하집단이 동질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반적 행복과 마찬가지로, 가정생활 행복이나 직장생활 행복은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집단이 중간집단이나 하집단보다 더욱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가생활 행복 경우는 자녀학업성취 상집단과 하집단은 이질 집단이나, 중간집단은 상집단 및 하집단과 모두 비슷한 행복수

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자녀의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집단이 중간정도나 낮은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행복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영역별로 볼 때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행복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행복 수준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 비교

직업성취,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가 행복 수준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표 6. 직업성취,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가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투입독립변인	<i>B</i>	β	<i>R</i>	<i>R</i> ²	<i>F</i>
전반적 행복	직업성취	.30	.32***	.47	.22	153.81***
	가정경제수준	.31	.22***			
	자녀학업성취	.08	.09***			
가정생활 행복	직업성취	.26	.26***	.41	.16	105.42***
	가정경제수준	.28	.19***			
	자녀학업성취	.09	.09***			
직장생활 행복	직업성취	.40	.43***	.49	.24	156.41***
	가정경제수준	.15	.11***			
	자녀학업성취	.03	.03			
여가생활 행복	직업성취	.26	.24***	.36	.13	79.19***
	가정경제수준	.31	.19***			
	자녀학업성취	.04	.03			

*** $p < .001$

비교하였다. enter방식으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¹⁾

전반적 행복의 경우에 직업성취,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에 의한 설명변량이 22%로 나타났으며,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투입 독립변인별로 보면, 직업성취의 β 가 .32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가정경제수준은 $\beta = .22$, 자녀학업성취는 $\beta = .09$ 로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성인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에 대해 직업성취,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 모두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치며, 특히 직업성취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가정생활 행복을 보면, 직업성취,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의 세 독립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가정생활 행복의 설명변량이 16%이고,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각의 독립변인별로 보면, 세 독립변인 모두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였다. β 값을 비교하였을 때, 직업성취가 .26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의 순서로 크기가 작아졌다. 그러므로 세 변인 모두 영향력이 있지만, 가정생활 행복에 대해 직업성취가 가장 영향력이 크고, 그 다

1) 성별 변인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남자집단과 여자집단 각각별로 직업성취,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가 미치는 행복 수준에 대한 영향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가, 부록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남자와 여자 성인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따라서 표 6에서는 남자와 여자 성인의 데이터를 합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음으로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의 순서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생활 행복의 경우에 세 독립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설명변량이 24%였으며,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였다. 독립변인별로 보면 직업성취의 β 가 .43으로 현저하게 컸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경제수준이 .11로 모두 $p < .001$ 수준의 유의한 값을 보였다. 그러나 자녀학업성취는 유의한 독립변인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직장생활 행복은 직업성취 수준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영향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가정경제수준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 행복은 세 독립변인에 의한 설명변량이 13%였고,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투입 독립변인 각각의 유의도를 살펴보면, 직업성취의 β 가 .2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가정경제수준이 .19로서, 이 두 변인 모두 $p < .001$ 수준의 유의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직장생활 행복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학업성취는 여가생활 행복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포함되지 못하였다.

4. 성인이 지각한 행복의 요인

성인이 지각한 행복의 요인을 전반적인 측면과 더불어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의 세 하위영역에서 각각 질적 분석한 결과가 표 7~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전반적으로 가장 행복한 때에 대한 분석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기타를 제외하면 총 9개의 범주가 부각되었다. 이 중에서 가정의 화목(항목 예: 가족과 함께 함, 가정 화목)이 42.8%로 거의 반수에 가까운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자녀의 출산과 성장(항목 예: 자녀 출산, 자녀 성장)이 20.1%, 건강(항목 예: 가족 건강, 자녀 건강)이 10.0%로서 높은 반응률을 나타내었다. 이 외

표 7. 전반적으로 가장 행복한 때

	전체(%)	직업성취별(%)			가정경제수준별(%)			자녀학업성취별(%)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1. 가정의 화목	791(42.8)	355(45.6)	260(39.9)	28(30.1)	102(42.1)	600(44.8)	85(32.6)	374(42.3)	337(44.9)	72(37.5)
2. 자녀의 출산과 성장	371(20.1)	137(17.6)	145(22.2)	21(22.6)	50(20.7)	256(19.1)	65(24.9)	186(21.0)	150(20.0)	33(17.2)
3. 건강	184(10.0)	79(10.2)	61(9.4)	10(10.8)	23(9.5)	139(10.4)	21(8.0)	89(10.1)	73(9.7)	21(10.9)
4. 개인적 성취감	132(7.1)	64(8.2)	43(6.6)	6(6.5)	17(7.0)	94(7.0)	21(8.0)	71(8.0)	42(5.6)	17(8.9)
5. 경제적 안정	85(4.6)	33(4.2)	30(4.6)	6(6.5)	9(3.7)	60(4.5)	15(5.7)	47(5.3)	30(4.0)	6(3.1)
6. 휴식 및 여가시간	64(3.5)	28(3.6)	29(4.4)	5(5.4)	9(3.7)	46(3.4)	9(3.4)	30(3.4)	24(3.2)	7(3.6)
7. 긍정적 정서	64(3.5)	33(4.2)	20(3.1)	2(2.2)	16(6.6)	39(2.9)	8(3.1)	28(3.2)	28(3.7)	7(3.6)
8. 다양한 취미활동	49(2.7)	19(2.4)	18(2.8)	1(1.1)	6(2.5)	39(2.9)	4(1.5)	22(2.5)	17(2.3)	9(4.7)
9. 지난 시절	48(2.6)	13(1.7)	16(2.5)	9(9.7)	5(2.1)	29(2.2)	14(5.4)	16(1.8)	19(2.5)	13(6.8)
10. 기타	61(3.3)	17(2.2)	30(4.6)	5(5.4)	5(2.1)	37(2.8)	19(7.3)	22(2.5)	31(4.1)	7(3.6)
계	1849(100.0)	778(100.0)	652(100.0)	93(100.0)	242(100.0)	1339(100.0)	261(100.0)	885(100.0)	751(100.0)	192(100.0)

표 8. 가정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때

	전체(%)	직업성취별(%)			가정경제수준별(%)			자녀학업성취별(%)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1. 가정의 화목	842(43.9)	393(49.5)	277(40.2)	38(38.0)	112(46.3)	629(45.3)	96(34.7)	401(44.3)	341(42.9)	90(45.9)
2. 자녀출산과 성장	526(27.5)	197(24.8)	199(28.9)	31(31.0)	67(27.7)	369(26.5)	89(32.1)	236(26.1)	231(29.1)	54(27.6)
3. 가족의 성취	238(12.4)	87(11.0)	100(14.5)	7(7.0)	23(9.5)	169(12.2)	46(16.6)	127(14.0)	92(11.6)	17(8.7)
4. 건강	161(8.4)	57(7.2)	57(8.3)	11(11.0)	23(9.5)	116(8.3)	21(7.6)	75(8.3)	67(8.4)	17(8.7)
5. 경제적 안정	73(3.8)	30(3.8)	25(3.6)	9(9.0)	9(3.7)	49(3.5)	15(5.4)	32(3.5)	30(3.8)	11(5.6)
6. 기타	76(4.0)	30(3.8)	31(4.5)	4(4.0)	8(3.3)	58(4.2)	10(3.6)	34(3.8)	33(4.2)	7(3.6)
계	1916(100.0)	794(100.0)	689(100.0)	100(100.0)	242(100.0)	1390(100.0)	277(100.0)	905(100.0)	794(100.0)	196(100.0)

에, 개인적 성취감(항목 예: 목표성취, 원하는 것을 함), 경제적 안정(항목 예: 내 집 마련, 안정된 수입), 휴식 및 여가시간(항목 예: 휴식, 여유로움), 긍정적 정서(항목 예: 항상 행복함, 만족감), 다양한 취미활동(항목 예: 여행, 운동), 지난 시절(항목 예: 신혼시절, 학창시절)이 순서대로 포함되었다.

하위집단별 분석결과를 보면, 직업성취별로 상집단에서 긍정적 정서 범주가 휴식 및 여가시간 범주보다 약간 반응률이 더 높고, 하집단에서 지난 시절 범주가 반응률이 높은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체집단의 반응 패턴과 일치하였다. 가정경제수준별 분석에서 직업성취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집단은 긍정적 정서 범주의 반응률이 다른 범주들보다 높은 편이고, 하집단은 지난시절 범주의 반응률이 높았다. 이외에는 가정경제수준 상중하 집단 모두 전체집단의 전반적인 행복에 대한 지각과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다. 자녀학업성취별 분석에서는 중간집단 경우에 긍정적 정서가 휴식 및 여가시간 범주보다 약간이지만 더 높은 반응률을 보였고, 하집단은 지난 시절 범주의 반응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가장 행복한 때는 성인 2명 중에서 약 1명은 가정이 화목할 때라고 응답하였으며, 성인 5명 중에서 1명은 자녀의 출산과 성장을, 10명 중에서 1명은 건강을 지적하였다. 하위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는, 직업에서 성취수준이 높거나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행복감과 관련된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반면에 직업성취수준이 낮거나 가정경제수준이 낮거나 자녀학업성취수준이 낮은 집단은 지난 시절을 행복했다고 지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8은 가정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때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다섯 개 범주가 지적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정의 화목(항목 예: 가족과 함께 함, 가정화목)이 43.9%로 거의 반수에 가까웠다. 그 다음으로 자녀출산과 성장(항목 예: 자녀출산, 자녀의 올바른 성장)이 전체 응답의 1/4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가족의 성취(항목 예: 자녀의 학업성취, 가족의 성취)가 1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이외에 건강(항목 예: 가족건강, 자녀건강)과 경제적 안정(항목 예: 내 집 장만, 경제

적 여유)이 가정생활에서 행복한 범주로 포함되었다.

직업성취 상중하 집단별, 가정경제수준 상중하 집단별, 자녀학업성취 상중하 집단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을 때, 모든 집단에서 가정의 화목 범주가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자녀출산과 성장이 두 번째로 높은 반응률을 보이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그 외의 다른 범주들도 전체 집단 반응 결과와 같은 패턴을 보였다. 단, 직업성취별 분석에서 하 집단 경우에, 상집단 및 중간집단과 달리, 건강 범주에 대한 반응률이 가족의 성취 범주에 대한 반응률보다 약간 더 높았다. 이와 같은 차이가 있었으나, 가정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전반적인 반응 패턴에서, 상중하 하위집단별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직장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때를 분석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집단의 분석결과를 보면, 총 8개 범주 중에서 없음과 기타를 제외하면, 6개 범주가 부각되었다. 개인적 성취감(항목 예: 목표 성취, 개인적 성취)

이 3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안정(항목 예: 수입 증가, 급여 받음)이 20.8%로서 5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응답하였다. 10~20% 사이의 비율을 보인 범주는 주위의 인정(항목 예: 인정받음, 상사의 인정) 및 승진(항목 예: 승진)이었고, 이외에 원만한 인간관계(항목 예: 원만한 동료관계, 동료간 친목 도모), 긍정적 정서(항목 예: 보람 느낌, 만족감) 범주가 포함되었다. 직장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때를 질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때가 없다고 반응한 경우가 2.8%에 해당하였다.

직업성취별, 가정경제수준별, 자녀학업성취별 하위집단의 반응을 살펴보면, 직업성취별로는 하집단이 상집단 및 중간집단과 달리, 없음(10.5%) 범주의 반응률이 네 번째로 매우 높게 나왔다. 그리고 중간집단 경우에도 상집단과 달리, 직장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없다는 반응(3.6%)이 긍정적 정서(3.2%) 범주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 상집단은 중간집단 및 하집단과 달리, 승진(16.5%) 범주

표 9. 직장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때

	전체(%)	직업성취별(%)			가정경제수준별(%)			자녀학업성취별(%)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1. 개인적 성취감	514(34.1)	275(37.1)	182(30.8)	29(33.7)	61(31.4)	384(35.5)	68(30.4)	257(36.1)	211(34.4)	42(25.8)
2. 경제적 안정	313(20.8)	145(19.6)	135(22.8)	19(22.1)	48(24.7)	208(19.2)	55(24.6)	151(21.2)	122(19.9)	37(22.7)
3. 주위의 인정	251(16.7)	119(16.1)	99(16.8)	13(15.1)	24(12.4)	183(16.9)	44(19.6)	126(17.7)	89(14.5)	35(21.5)
4. 승진	191(12.7)	110(14.8)	73(12.4)	7(8.1)	32(16.5)	142(13.1)	17(7.6)	91(12.8)	75(12.2)	22(13.5)
5. 원만한 인간관계	108(7.2)	45(6.1)	46(7.8)	5(5.8)	17(8.8)	76(7.0)	13(5.8)	39(5.5)	56(9.1)	10(6.1)
6. 긍정적 정서	56(3.7)	29(3.9)	19(3.2)	2(2.3)	10(5.2)	39(3.6)	6(2.7)	19(2.7)	24(3.9)	9(5.5)
7. 없음	42(2.8)	8(1.1)	21(3.6)	9(10.5)	1(.5)	24(2.2)	17(7.6)	17(2.4)	20(3.3)	5(3.1)
8. 기타	31(2.1)	10(1.3)	16(2.7)	2(2.3)	1(.5)	26(2.4)	4(1.8)	12(1.7)	16(2.6)	3(1.8)
계	1506(100.0)	741(100.0)	591(100.0)	86(100.0)	194(100.0)	1082(100.0)	224(100.0)	712(100.0)	613(100.0)	163(100.0)

의 반응률이 주위의 인정(12.4%) 범주의 반응률보다 더 높았다. 그러므로 직업성취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직장생활에서 행복할 때가 없다는 반응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낮은 집단보다 직장생활에서 승진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하위집단별 분석결과가 전체 반응 패턴과 일치하였다.

표 10은 여가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때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전체 집단의 분석결과를 보면, 총 9개 범주 중에서 없음과 기타를 제외하면 7개의 범주가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인 범주는 가족과 함께 함(항목 예: 가족여행, 가족과 함께 함)이 29.2%였다. 그 다음으로 10~20% 사이의 반응률을 보인 범주는 다양한 취미활동(항목 예: 여행, 취미활동)이 17.2%, 운동(항목 예: 운동, 등산)이 14.8%, 휴식 및 여가시간(항목 예: 휴식, 여유로움)이 11.9%였다. 그 다

음으로 포함된 범주는 개인적 성취감(항목 예: 하고싶은 것 성취, 원하는 것 함)이 9.6%, 긍정적 정서(항목 예: 만족감, 즐거움)가 6.1%, 친구와 함께 함(항목 예: 친구 만남, 모임)이 4.8%였다. 그러므로 여가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때로 가족과 함께 함과 친구와 함께 함 범주가 모두 부각되었으나, 가족과 함께 함이 약 6배 정도로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

직업성취별, 가정경제수준별, 자녀학업성취별 하위집단의 반응을 살펴보면, 상중하 집단별로 반응패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직업성취별로 볼 때, 하집단은 상집단이나 중간집단에 비해 없음(13.5%) 및 친구와 함께 함(7.9%) 범주에 대한 반응률이 현저하게 높은 차이가 있었다. 가정경제수준 상집단은 중간집단 및 하집단에 비해 개인적 성취감(10.0%) 범주에 대한 반응률이 휴식 및 여가시간(7.9%) 범주보다 약간 더 높았다. 그리고 하집단은 상집단이나 중간집단에 비해, 휴식 및 여가시간(14.1%) 범주에 대한 반응률이 운동(11.2%)

표 10. 여가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때

	전체(%)	직업성취별(%)			가정경제수준별(%)			자녀학업성취별(%)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1. 가족과 함께 함	521(29.2)	240(31.4)	178(28.6)	25(28.1)	68(29.7)	379(29.1)	70(28.1)	262(30.5)	208(28.7)	45(25.0)
2. 다양한 취미활동	307(17.2)	123(16.1)	105(16.9)	21(23.6)	43(18.8)	225(17.3)	38(15.3)	146(17.0)	125(17.2)	31(17.2)
3. 운동	264(14.8)	124(16.2)	73(11.7)	12(13.5)	39(17.0)	196(15.1)	28(11.2)	124(14.4)	106(14.6)	31(17.2)
4. 휴식 및 여가시간	213(11.9)	78(10.2)	101(16.2)	7(7.9)	18(7.9)	160(12.3)	35(14.1)	97(11.3)	91(12.6)	22(12.2)
5. 개인적 성취감	171(9.6)	70(9.2)	51(8.2)	4(4.5)	23(10.0)	126(9.7)	22(8.8)	80(9.3)	71(9.8)	19(10.6)
6. 긍정적 정서	109(6.1)	58(7.6)	33(5.3)	1(1.1)	18(7.9)	83(6.4)	8(3.2)	59(6.9)	40(5.5)	9(5.0)
7. 친구와 함께 함	85(4.8)	34(4.5)	32(5.1)	7(7.9)	9(3.9)	61(4.7)	15(6.0)	47(5.5)	31(4.3)	6(3.3)
8. 없음	83(4.6)	24(3.1)	39(6.3)	12(13.5)	3(1.3)	55(4.2)	25(10.0)	31(3.6)	42(5.8)	10(5.6)
9. 기타	32(1.8)	13(1.7)	11(1.8)	-	8(3.5)	16(1.2)	8(3.2)	13(1.5)	11(1.5)	7(3.9)
계	1785(100.0)	764(100.0)	623(100.0)	89(100.0)	229(100.0)	1301(100.0)	249(100.0)	859(100.0)	725(100.0)	180(100.0)

범주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하 집단은 상집단이나 중간집단에 비해, 없음(10.0%) 범주가 현저하게 높았으며, 친구와 함께 함(6.0%) 범주도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률을 보이는 차이가 있었다. 자녀학업성취별로도 중간집단과 하집단은 상집단에 비해 없음 범주의 반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있었다. 이외에는 상중하 하위집단별로 반응패턴에서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여가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때로서 가족과 함께 함이 가장 대표적인 범주로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직업성취별로나 가정경제수준별로나 자녀학업성취별로 하집단은 상집단이나 중간집단에 비해 여가생활에서 행복한 때가 없다는 반응률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친구와 함께 한다는 반응률의 순위도 높았다.

IV. 논의 및 결론

1. 성인 행복의 수준

이 연구에서 성인의 행복 수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불행하다기보다 행복하게 지각하고 있었다(표 2 참고).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한국 성인의 행복 지수가 100점 만점에 63.22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음을 보고한 서은국 등(2010)의 연구결과나, 한국인의 현재 삶의 전반적 만족도가 5점 척도에서 3.6점으로 중간을 약간 상회한 여성가족부(2010)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국제 비교 결과로

서, OECD 주요국의 행복지수를 산출하였을 때 8점 만점에 5.75점으로 중간 이상의 값을 보인 결과(연합뉴스, 2012. 5. 23)와도 일치하는 맥락이다.

한국 성인의 행복 수준을 하위영역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직장생활이나 여가생활보다는 가정생활에서 행복하게 지각하는 정도가 훨씬 높았다(표 2 참고). 이러한 성인들의 결과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이나 여가생활보다 가정생활에서의 행복 수준이 높은 것(박영신 등, 2012)과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 청소년이나 성인 모두, 가정생활에서의 행복 수준이 가장 높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직업성취 집단별, 가정경제 집단별, 자녀학업성취 집단별 행복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직업에서 성취도가 높을수록,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더욱 행복 수준이 높았는데, 전반적인 행복 수준만이 아니라 하위영역별 행복 수준에서도 모두 높았다(표 3~표 5 참고). 즉 직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이 직장생활 행복만이 아니라, 가정생활 행복과 여가생활 행복 수준이 높았다. 또한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가정생활 행복만이 아니라, 직장생활 행복과 여가생활 행복 수준이 높았고, 자녀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이 가정생활 행복만이 아니라 직장생활 행복과 여가생활 행복도 높았다.

직업성취,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가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에서도, 이 세 변인 모두 성인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표 6 참고). 행복에 대한 상대적인 설명력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직업성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성인의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데, 직업성취,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가 다 의미있는 영향력이 있으나, 특별히 직업성취가 성인 행복 수준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 직업성취,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가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이 분석한 경로모형에서 직업성취, 가정경제수준, 자녀의 성공이 모두 성인의 행복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결과와 일치한다.

성인들 경우에 직업에서의 성취가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거듭 확인되어 왔다. 행복 형성과정에 대한 경로분석에서 직업성취는 성인의 행복에 의미있는 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효과분석에서 직업성취는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2배 정도로 확인되었다(박영신, 김의철, 2009a). 이와 같이 경제력보다도 직업에서의 성취감이 행복에 더 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은 이 연구의 결과(표 6 참고)와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 직업성취와 더불어 가정경제수준도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표 4, 표 6 참고), 이와 같이 경제력이 행복과 관련되어 있음은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되어 왔다. 집단간 차이 검증 결과에 의하면,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행복하였다(박영신, 김의철, 2009b). 비록 정서적 지원이나 직업성취 및 자기효능감이나 자녀성공과 같은 변인보다는 설

명력이 낮았지만, 월평균 수입은 행복 수준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포함되었다(박영신, 김의철, 2009a). 또한 남편과 취업주부들의 경우는 월평균 수입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행복 수준에 영향력이 없었으나, 전업주부들 경우에는 자녀의 행복과 더불어 월평균 수입이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박영신, 김의철, 2011).

행복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가정경제수준과 성취도는 삶의 질을 예언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포함되었다(박영신, 김의철, 2006). 또한 삶의 질에 대한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질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요인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6). 일련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적 자원이 기본적인 요소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가 산업화시대 이후 단기간에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해 오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물질적 풍요를 행복의 기준으로 여기게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직업성취 및 가정경제수준과 더불어 자녀학업성취도 한국 성인의 행복 수준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표 5, 표 6 참고). 한국 성인에게 자녀는 행복이나 가정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변인임이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되어 왔다. 집단별 행복의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자녀가 성공했다고 지각하는 성인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더욱 행복하였다(박영신, 김의철, 2009b). 특히

전업주부들 경우에 자녀성공은 가정의 월평균 수입과 함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의미있는 변인이었다(박영신, 김의철, 2009b). 또 다른 연구에서 성인 여성의 행복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은 자녀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인 것으로 밝혀졌다(유경, 이주일, 2010). 한편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의 연구에서 자녀성공이 월평균 수입보다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1.5배 정도로 컸는데, 이 연구에서 자녀학업성취는 가정경제수준보다 약간 영향력이 적게 나타남으로써 차이가 있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전반적인 성공의 정도를 측정하였다면, 이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측정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만약 가족생활주기별 분석을 한다면, 자녀학업성취와 가정경제수준의 행복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의 정도가 이 연구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를 필요로 한다.

부모를 행복하게 만드는 자녀관련 특성 가운데서도, 특별히 학업성취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왔다. 한국 부모들이 가장 감동하는 자녀의 효도가 학업충실이고, 자녀의 대표적인 효도행동으로 학업충실이 포함되었다(박영신 등, 2011). 이러한 사실은 자녀들이 학업에 충실할 때 한국 부모들은 감동하며 자녀가 효도한다고 생각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자녀의 효도는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켰다(박영신 등, 2011).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자신이 학업에서 높은 성취를 할 때 부모가 행복해 한다고 회고하였다(김은미 등, 2003).

자녀의 학업충실이 어떻게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지, 심리적인 과정에 대

해 분석을 시도한 결과가 있다. 자녀가 학업에 충실할 때 자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며, 이렇게 증진된 신뢰는 부모의 관계효능감만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효능감 및 자녀와 의사소통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이렇게 증진된 자기효능감은 결과적으로 부모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켰다(박영신, 김의철, 2008).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한국 성인의 행복을 부모자녀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 성인 행복의 요인

이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행복한 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 성인 약 2명 중 1명은 가정의 화목을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자녀의 출산과 성장이 두 번째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성인 5명 중에서 1명이 이러한 응답을 하였다. 가정의 화목, 자녀의 출산과 성장을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2/3가 전반적으로 가장 행복한 때에 대해 가정생활과 관련된 요인을 지적하였다(표 7 참고). 가정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때를 분석한 결과도 가정의 화목이 가장 대표적이었고, 그 다음으로 자녀출산과 성장이었다(표 8 참고).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 성인들이 행복의 요인으로 가정생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반응은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비교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나은영과 차유리(2010)에 의하면, 1979년부터 1998년까지 19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2년 동안에도 개인주의와 남녀평등의식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즉 나라보다

는 자신과 가족을 더 떠맡들어야 한다는 개인주의가 크게 증가한 반면에, 충효사상은 점차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이 국가와 같은 집단에 대한 인식은 약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했다고 하지만, 이 개인주의는 개인만을 의미하기보다 내 가족을 중심으로 여기는 개인주의를 포함한다. 한국 사회가 최근 30여년 동안 많은 가치 변동이 있었지만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가치는 개인중심의 개인주의와 더불어 계속 강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가정과 관련된 요인들이 성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변인임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져 왔다. 한국 사람들은 가정이 화목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표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은미 등, 2003). 한국 청소년 행복의 가장 대표적인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정의 화목함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신 등, 2012). 청소년과 성인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불행한 때로서 가정이 불화할 때를 약 1/4 정도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김의철 등, 2012)도 가정화목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한국인의 성취의식에 대한 연구에서도 화목한 가정생활이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의 대표적 개념 범주들 중의 하나로 포함된 바 있다(박영신 등, 2010).

이와 같이 가정의 화목이나, 자녀의 출산이나 성장과 같이 가정생활과 관련된 요소들이 한국 성인의 행복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은, 가족과 식사나 전화통화와 같이 가족과 함께 하는 일상적인 활동들이 가족관계나 행복 및 건강을 증진시킨 것으

로 밝힌 선행연구 결과들(김경미 등, 2012; Eisenberg et al., 2004; Jacob et al., 2008)과도 일관된 맥락이다. 또한 자녀나 배우자와 같은 가족관계 변인이 성인의 삶의 만족도나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와 같은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포함됨으로써 가족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전경숙 등, 2008).

전반적으로 가장 행복한 때에 대한 분석 결과(표 7 참고)에서, 가정화목 및 자녀출산과 성장으로 대표되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요소의 중요성 외에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직업성취별, 가정경제수준별, 자녀학업성취별 집단에서 모두, 성취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 정서 범주에 대한 응답이 많은 반면, 성취 하집단은 지난 시절 범주에 대한 반응이 더 많은 사실이다. 즉 높은 성취집단은 긍정적 정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각하고 있지만, 낮은 성취집단은 현재 긍정적 정서를 지각하기 보다는 지난시절에 대한 추억을 회고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성인들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때로는 개인적 성취감이 가장 중요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안정, 주위의 인정, 승진과 같은 요소가 대표적이었다(표 9 참고). 직장생활에서의 행복과 관련하여, 직업성취별로 보았을 때 직업성취 중간집단과 하집단은 상집단과 달리, 긍정적 정서보다는 행복한 때가 없다는 범주에 대한 응답이 더 많았고, 가정경제수준별로 보았을 때 상집단은 상대적으로 승진 범주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면, 하집단은 직장생활에서 행복한 때가 없다는 반응률이 더 높았다(표 9 참고). 이와같이 직업성취도가 낮은 집

단일수록 직장생활에서 행복한 때가 없다는 비율이 높은 사실 또한 직장생활에서 개인의 성취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직업에서의 성취는 행복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남자 직장인들 경우에 직업성취는 주위사람들의 정서적 지원과 더불어 행복을 예측하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9b).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직무성취도는 직무만족도를 증진시켰다(박영신 등, 2009).

이 연구에서 여가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때로 가족과 함께 함이라는 응답이 성인 10명 중에서 3명 정도에 해당하였다. 즉 여가생활을 가족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는 응답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남으로써, 한국 성인들의 가족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가족과 여가활동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과 가족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김경미 등, 2012). 그런데 가정경제수준별로나 직업성취별로나 자녀학업성취별로 하집단은 상집단이나 중간집단에 비해 여가생활에서 행복한 때가 없다는 반응률이 높았으며, 친구와 함께 할 때 여가생활이 행복하다는 반응률이 높았다. 이와같이 낮은 성취집단이 높은 성취집단에 비해 여가생활을 할 때 가족과 함께 하는 기쁨이 상대적으로 적고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의 행복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각하는 경향은(표 10 참고), 가정생활에서의 행복에 대한 분석(표 8 참고)에서 직업성취 하집단 경우에 상집단이나 중간집단과 달리 가족성취의 범주보다 건강에 더 높게 반응함으로써, 가족

성취로 인한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결과들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3.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

이 연구에서는 행복의 수준과 행복의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직업성취별 가정경제수준별 자녀학업성취별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행복을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다른 의미있는 변인들이 있다. 예를 들어 주위 의미있는 사람들로부터의 따스한 정서적 지원과 같은 관계적 자원이 행복에 대한 영향력은 월평균 수입보다 4~5배 정도이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자원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은 월평균 수입보다 2배 정도나 되었다(박영신, 김의철, 2009a). 특별히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은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핵심변인이었다(박영신, 김의철, 2008).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 사회적 변인들과 연관 지어 행복의 수준과 행복의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행복에 초점을 두고 성인의 행복 수준과 행복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김의철 등, 2012)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불행한 때에 대한 분석은 진행된 바 있지만, 예를 들어 가정에서 가장 불행한 때, 직장에서 가장 불행한 때 등 구체적인 영역 상황에서 불행의 심리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불행의 심리가 행복이 양적으로 결여된 상태와 같은 동일 차원의 양극단인지, 아니면 행복의 심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다차

원적인 심리특성인지, 불행의 심리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에 기반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성인기의 행복과 관련하여 경험 과학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행복에 대한 지각이 성인 초기, 중기, 후기로 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발달적 관점에서 종단적으로 추적하는 연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성인기의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응용연구들, 즉 성인기의 행복을 강화하는 개인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수행, 평가 등과 관련된 실험연구(action research)의 활성화 등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행복의 수준이나 행복의 요인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한국 성인의 토착심리 특징들이 시사되었다. 예컨대 자녀학업성취 집단이나 중간집단이나 하집단보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에서 더욱 행복하고, 중간집단이나 하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결과(표 5 참고)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한국 부모의 기대가 부모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부모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자녀학업성취의 수준에 따라 부모의 행복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자녀의 성공이 한국 성인 행복심리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들(박영신, 김의철, 2009a, 2011; Kim & Park, 2008)과 밀접히 관련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가장 행복할 때로서 한국 성인들이 가정이 화목할 때나 자녀를 출산하거나 성장했을 때와 같은 가족관련 가치가 가장 대표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도, 한국 성인의 행복 핵심요인이 가정 화목에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인의 행복에 관한 연구들에서 한국인 토착심리의 특징들에 대한 관심과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국인의 행복 인식을 서양이론의 틀이 아니라 예컨대 신명과 같은 한국문화에 토대한 개념으로 접근한 시도도 있었다(한민, 한성열, 2009). 주관적 안녕감에서의 문화차이가 국가별로 행복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의 긍정성 수준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결과(성민선, 서은국, 2007)도, 행복 연구에서 문화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경험과학적 탐구의 누적은, 한국 문화와 한국인 토착심리(Kim & Park, 2004)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 가는 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2). 가족간 식사, 통화 및 여가활동과 중년기의 행복.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2), 279-300.
-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33.
- 김은미, 구재선, 최상진 (2003). 행복에 대한 사회문화적 표상.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373-374.
- 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문화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4), 1-36.
- 김의철, 박영신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II):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 63-109.
- 김의철, 박영신, 박선영 (2012). 청소년과 부모가 지각한 행복과 행복의 조건 및 불행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인간발달연구, 19(2), 197-225.
- 나은영, 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3.
- 류승아, 김경미, 최인철 (2011). 중년기 여가생활이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4), 415-434.
-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 박영신, 김의철 (2008).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자녀에 대한 신뢰 및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71-101.
- 박영신, 김의철 (2009a).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 한국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특집호, 95-132.
- 박영신, 김의철 (2009b). 한국 성인 남녀가 행복에 이르는 길: 직업 성취, 자녀 성공,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467-495.
- 박영신, 김의철 (2011). 중년기 성인 남녀의 행복 형성 요인: 전업주부, 취업주부와 그들의 남편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1), 65-108.
- 박영신, 김의철 (2013). 한국인의 성취의식: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김경자 (2010). 한국 청소년과 부모가 지각한 성공의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성공 경험, 사회적 지원, 성공 원인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4(3), 785-829.
- 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 박영신, 김의철, 박은실 (2009). 사회적 지원과 교사효능감이 직무성취도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 교사에 대한 단기 종단분석. 교육심리연구, 23(3), 491-520.
- 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11). 자녀효도 관련 토착심리 탐구와 자녀효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초, 중, 고, 대학생 부모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9(4), 87-120.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박선영 (2012).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의 수준과 요인: 가정, 학교,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9), 149-188.
- 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 (2010). 한국인의 행복 지수와 그 의미.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13-232.

- 성민선, 서은국 (2007). 행복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의 긍정성 수준과 주관적 안녕감의 문화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386-387.
- 여성가족부 (2010). 한국인의 현재 삶 만족도.
- 연합뉴스 (2012. 5. 23). OECD 주요국 행복지수 순위: 36개 국가 대상 조사.
- 유 경, 이주일 (2010). 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대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89-104.
- 유 경, 이주일, 강연옥, 박군석 (2009). 노년기 정서 경험의 변화와 주관적 안녕감: 종단연구 분석. 한국노년학, 29(2), 729-742.
- 전경숙, 정태연, 황병의 (2008). 청소년세대와 부모세대 간 행복의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08-209.
- 조병구, 김종희, 박명호, 오완근, 박찬열 (2010).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분석체계 개발. 한국개발연구원.
- 한 민, 한성열 (2009). 신명나는 삶: 한국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특집호, 81-94.
- Cameron, P. (1995). Mood as an indicator of happiness: Age, sex, social class, and situa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ist*, 31, 117-124.
- Diener, E., Suh, E., Lucas, R., &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Eisenberg, M. E., Olson, R. E., Neumark-Sztainer, D., Stroy, M., & Bearinger, L. H. (2004). Correlations between family meal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adolescents,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58, 792-796.
- Jacob, J. I., Hill, E. J., Allen, S. M., & Mead, N. L. (2008). Dinnertime as a mediator between work hours and work and family outcome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6, 310-327.
- Kim, U., & Park, Y. S. (2004). Indigenous psychologies. In C. Spielberger(Ed.), *Encyclopedia of applied psychology, vol 2* (pp.263-269). Oxford: Elsevier Academic Press.
- Kim, U., & Park, Y. S. (2008). Chapter 21. Cognitive, relational and social basis of academic achievement in Confucian cultures: Psychological, Indigenous, cultural perspectives. In R. Sorrentino & S. Yamaguchi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within and across cultures*(pp.491-515). San Diego, CA: Elsevier/Academic Press.
- Kim, U., Yang, K. S., & Hwang, K. K. (2006).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people in context*. New York: Springer.
- Myers, D. (1996). The fund, friends, and faith of happy people. *American Psychologist*, 55, 56-67.
- Park, Y. S. (2008). Parent-child relationship,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The role of self-regulation, social support, and efficacy beliefs in Korea. Invited keynote address at the XXIX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p.168). July 20-25, International Congress Centrum Berlin, Germany.
- Russell, B. (2004). *The conquest of happiness*. 행복의

정복. 이순희(역). 서울: 사회평론. (원본
발간일, 1930)

1 차원고접수 : 2013. 04. 02.

수정원고접수 : 2013. 05. 22.

최종게재결정 : 2013. 06. 04.

The Perception of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and Cause of Happiness among Adults: With a Specific Focus on Family, Work and Leisure Life

Park, Young-Shin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Kim, Uichol

Inha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Baak, Sun-Young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and cause of happiness among adults, focusing on the family, work and leisure life and their overall happiness.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occupational achievement,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ir children on the level and cause of happiness. A total of 1,970 adults (male=985, female=985) completed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first two autho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Overall, respondents reported being happy, especially in their family life. Second, respondents with higher levels of occupational achievement, socio-economic statu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their children reported higher scores on happiness in their family, work, and leisure life and their overall happiness. Thir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indicate that occupational achievement was the most important predictor of overall happiness, followed by socio-economic statu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their children. Fourth,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were happy in their family life when there was harmony in the family, when their child was born, and when family members were successful. For occupational lif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were happy when they were able to succeed in their work, when attaining financial security, when they were recognized by their colleagues, and when they were promoted. For leisure lif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were happy when they were able to spend time with their family members, and when they were engaged in their hobby and sport activities. Overall, a majority of the respondents were happy when there was harmony in the family, when their child was born and seeing them grow, and when they had good health.

Key words : happiness, level, cause, family life, occupational life, leisure life, occupational achievement, socio-economic status, academic achievement of their children, harmony in the family.

부록 표 1. 직업성취,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가 행복 수준에 대한 영향 중다회귀분석: 남자

종속변인	투입독립변인	B	β	R	R ²	F
전반적 행복	직업성취	.30	.32***	.46	.22	87.16***
	가정경제수준	.27	.19***			
	자녀학업성취	.08	.09***			
가정생활 행복	직업성취	.24	.25***	.39	.15	58.19***
	가정경제수준	.27	.19***			
	자녀학업성취	.09	.09**			
직장생활 행복	직업성취	.39	.43***	.51	.26	107.50***
	가정경제수준	.18	.13***			
	자녀학업성취	.05	.06			
여가생활 행복	직업성취	.23	.21***	.35	.12	42.48***
	가정경제수준	.30	.19***			
	자녀학업성취	.03	.03			

** $p < .01$ *** $p < .001$

부록 표 2. 직업성취, 가정경제수준, 자녀학업성취가 행복 수준에 대한 영향 중다회귀분석: 여자

종속변인	투입독립변인	B	β	R	R ²	F
전반적 행복	직업성취	.32	.32***	.49	.24	67.07***
	가정경제수준	.36	.26***			
	자녀학업성취	.09	.09*			
가정생활 행복	직업성취	.29	.28***	.42	.17	45.83***
	가정경제수준	.31	.20***			
	자녀학업성취	.10	.10**			
직장생활 행복	직업성취	.42	.44***	.47	.22	52.20***
	가정경제수준	.12	.09*			
	자녀학업성취	.00	.00			
여가생활 행복	직업성취	.32	.27***	.38	.15	36.84***
	가정경제수준	.32	.19***			
	자녀학업성취	.04	.03			

* $p < .05$ ** $p < .01$ *** $p < .001$